

# 희망 담은 '교향악축제' 속으로

클래식 음악 팬들이 손꼽아 기다리는 교향악축제가 드디어 막을 올린다.

광주시향과 KBS교향악단, 서울시향,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 등 국내 주요 교향악단이 총출동하는 '2021 교향악축제'가 30일부터 4월 22일까지 총 21회 일정으로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서 열린다.

지난 1989년 예술의전당 음악당 개관 1주년을 기념해 첫 선을 보인 교향악축제는 서울과 지방간의 벽을 허무는 시도와 정상급 연주자들의 협연으로 클래식 팬들의 사랑을 받아왔다. 올해는 21개 교향악단이 참여해 2012년 이후 최대 규모의 무대를 선보인다.

올해 축제의 키워드는 '뉴 노멀(New Normal·새로운 기준)'이다. 코로나 19로 침체된 음악계에 활력을 불어넣고 코로나 극복의 희망과 의지를 되새겨주는 자리로 모차르트와 베토벤부터 윤이상과 김택수에 이르기까지 다채로운 작품들이 연주된다. 또 사회적 거리두기 속 예년에 비해 더 많이 연주됐던 소편성 곡과 짙은 음향으로 객석을 압도하는 관현악곡을 골고루 배치했다.

모든 공연은 네이버TV를 통해 생중계돼 공연장을 찾지 못하는 관객들도 집에서 무대를 만날 수 있으며, KBS 클래식 FM에서도 실시간으로 감상할 수 있다.

가장 기대되는 무대는 오는 4월1일 정식 취임하는 광주시립교향악단 홍석원 지휘자의 데뷔 무대다. 광주시향은 오는 4월20일 오후 7시30분 무대에 오른다.

첫 곡은 차이코프스키 '피아노 협주곡 제1번'. 한국인으로는 처음으로 뮌헨 ARD콩쿠르에서 우승한 피아니스트 손정범이 협연한다. 이어 쇼스타코비치의 '교향곡 제5번'을 들려준다.

서울 공연에 앞서 열리는 프리뷰 무대는 4월9일 오후 7시 30분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극장1(R석 3만원, S석 2만원, A석 1만원)에서 열리며, 같은 레퍼토리로 광주 시민들을 만난다.

주요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축제의 시작을 알리는 성남시향(30일)은 금난새의 지휘로 생상스 '죽음의 무도', 멘델스존 '교향곡 제3번'을 선보인다. 이날 무대에는 플루티스트 최나경이 협연자로 올라 멘델스존 '바이올린 협주곡'을 연주한다.

김대일이 이끄는 창원시향(31일)은 플루티스

트 김유빈과 함께 모차르트 '플루트 협주곡 제2번'을 연주하며, 닐센의 교향곡 4번 '불멸'도 준비했다.

장윤성이 지휘하는 부천 필(4월3일)은 리스트 '교향시 제6번'을 시작으로 바이올리니스트 에스더 유와 바버 '바이올린 협주곡'을 들려주며, 최수열이 이끄는 부산시향(4월9일)은 피아니스트 김태형과 베토벤 '황제'를 협연하며, R.슈트라우스 '돈후안', 라벨 '라 발스' 등도 무대에 올린다.

또 서울시향(4월10일) 음악감독 오스모 벤스케는 바이올린 크리스텔 리, 첼로 요나단 루제만과 무대를 꾸민다. 시벨리우스 '핀란드'와 윤이상 '체임버 심포니', 브람스 '바이올린과 첼로를 위한 2중 협주곡'을 선보인다.

코리안심포니(4월11일)는 다비드 레일랑의 지휘와 첼리스트 양성원의 협연으로 슈만 '첼로 협주곡'을 들려주며, 대전시향(4월13일)은 말러 '교향곡 제6번'과 모차르트 '피아노 협주곡' (문지영 협연)을 무대에 올린다. 강남심포니오케스트라 지휘자 여자경은 4월15일 드보르작 '카니발' 서곡을 시작으로 바이올리니스트 김영욱과 함께 브루흐 '바이올린 협주곡'을 준비했다.

피날레는 4월22일 차웅이 이끄는 KBS교향악단이 장식한다. 이날 공연에서는 베르디 오



성남시향 금난새 지휘자



광주시향 홍석원 지휘자

우 등 실력과 연주자들이 무대에 오른다. 또 소프라노 서선영·홍혜란, 클라리네티스트 채재일, 바수니스트 유성권, 하프시코드 안종도 등 다양한 분야의 협연진을 만날 수 있다. 문의 02-580-1300.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광주시향과 협연하는 피아니스트 손정범



'희망의 꽃'

'꽃으로 전하는 희망과 사랑'

이경아 작가 초대전이 오는 31일부터 4월13일까지 광주 갤러리 515(남구 양림동 80)에서 열린다.

'희망의 꽃'을 주제로 관람객을 만나는 이번 전시는 광주비엔날레가 열리는 기간 동안 문화예술이 흐르는 양림동을 방문하는 이들에게 위로와 전하기 위해 마련된 기획전이다. 이 작가는 오랫동안 호기심을 놓지 않고 재료 실험을 이어갔고, 자신만의 혼합재료를 사용해 개성 넘치는 꽃 작품을 완성했다. 전시에는 혼합재료를 사용한 평면, 부조 등 30여점이 나왔다.

이 작가의 작품 소재는 '꽃'이다. 단순히 아름다운 꽃을 그리는데 대신에 가상의 정원, 상상의 정원에 피어나는 꽃을 통해 우리 삶을 이야기한다. 인간의 희로애락에 가장 먼저 반응하는 것 중의 하

## '희망의 꽃'이 피다

이경아 작가 초대전

31일~4월13일 갤러리 515

나가 꽃이라고 한다면, 그의 화폭에 피어나는 꽃은 희망과 사랑을 전하는 또 하나의 매개체다.

전시작들은 흔히 정물화에서 보는 꽃그림과는 차별화된다. 오랜 탐구를 통해 만들어낸 자신만의 혼합재료를 캔버스나 우드 판넬, 골판지 위에 투박하고 자유롭게 얹은 작품들은 붓 대신 거칠고 강한 나이프로 작업해 입체감을 주는 게 특징이다. 여기에 저마다의 슬픈 이야기, 아픔, 고통 등을 암시하는 절망과 이를 치유하고 감싸는 거즈를 활용해 색다른 느낌을 전하며 두텁게 살아온 꽃송이는 위로를 전한다.

이 작가는 "코로나 19로 모두가 힘든 상황에서 소박하게나마 희망을 이야기하는 작품들을 선보이고 싶었다"며 "모두 힘든 상황이지만 상상의 정원에서 희망의 꽃을 키워가는 마음으로 작업했다"고 말했다.

대학에서 독문학을 전공한 이경아 작가는 오랫동안 캐나다에서 생활했다. 광활한 자연 경관 속에서 위로를 받고 있던 그녀는 이후 그림을 그리게 되면서 그 때의 기운들을 화폭에 풀어놓았다. 이 작가는 지난 2016년 첫 개인전을 시작으로 갤러리 팔레트 서울, 갤러리 피아노, 쿼드 갤러리 등에서 8차례 개인전을 열었으며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레핀 아트 아카데미 등에서 열린 그룹전에 참여했다.

작가와와의 만남 행사는 개막일인 31일 오후 3시~6시까지 열린다. 문의 062-654-3003.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 '봄을 여는 재즈'

재즈 그룹 '리페이지', 31일 빛고을아트스페이스

'매일 마지막 주 수요일에는 재즈의 묘미를 느껴볼까?'

광주문화재단은 '문화가 있는 날' 첫 무대를 봄을 가득 담은 사운드의 재즈 음악으로 꾸민다.

'봄을 여는 재즈 Spring Breeze' 공연이 31일 오후 7시 30분 빛고을아트스페이스 5층 소공연장에서 열린다.

이날 무대를 꾸미는 재즈 음악단체 '리페이지'는 지난 2016년 창단 이후 앨범 'Our Home (2019)' 등을 발매했으며, 다양한 무대를 선보여 온 단체다.

공연 제목에는 '봄바람' 의미를 담았으며, 산들바람같은 부드러운 곡부터 따뜻한 힐링과 같은 바람까지 아름다운 재즈음악의 향연을 만나볼 수

있다.

레퍼토리는 'Up Jumped Sprin', 'Top Of The World', 'See You Next Spring', 'Close To You' 등이며, 리페이지 창작곡 'See You Next Spring'도 무대에 올린다.

공연에는 드럼 정명훈, 피아노 이예실, 베이스 한수정, 보컬 최유진 등이 오른다.

한편, 오는 11월까지 빛고을아트스페이스 소공연장에서 총 9회 진행되는 '문화가 있는 날' 올해 공연 주제는 '재즈'로 매일 마지막 주 수요일 밤에만 즐길 수 있는 재즈의 묘미를 선사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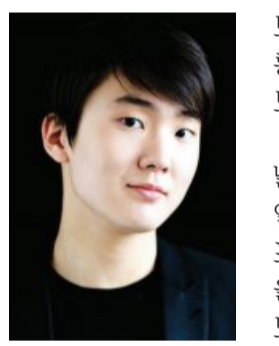
선착순 50명 관람. 문의 062-670-7926.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 이루마 등 17명 연주 도이체 그라모폰 31일까지 공개

'세계 피아노의 날' 기념

유니버설뮤직은 28일 '세계 피아노의 날'을 맞아 피아니스트 조성진(사진)과 이루마 등 음악가 17명의 연주 영상이 도이체 그라모폰(DG) 유튜브에서 무료로 공개했다.

150분 분량의 이 영상은 28일 밤 11시부터 31일 밤 11시까지 72시간 동안 관람할 수 있다. 영상에는 마리아 조앙 피레스, 야니 네제 세경, 루돌프 부흐빈더, 다닐 트리포노프, 발모라이, 안 리시에츠키, 라베코 자매, 울 베빙, 채드 로슨, 후이 마세나, 엘리스 사라 오



기념일이다. 피아노 건반이 88개인 것에 착안해 매년 88번째 날로 지정된다. /연합뉴스



서울시향 오스모 벤스케

소상공인 공동브랜드 k.tag 전국100개 인증업체선정

# 大山 프리모 남녀 가발

광주전남 기능장 호 국무총리상 표창 보건복지부 장관상 표창  
광주광역시 시장상 표창 광주남구 청장상 표창

특수가발 별매 (윈터치) 테잎 x 핀 x 기능장이 직접 37년 기술. 1만명 이상 내공 매주화요일 휴무 (일요일 정상 영업)

H.M사 등급제품 130만원  
59만원~

광주 남구 주월동 1199-12 라인가든아파트 상가 2층(대광여고 옆)  
062.673.5858 (모발모발)

## 모던 슬라브옥상 칼라강판 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아파트, 빌라, 원룸, 주택, 상가건물, 대형빌딩 등(슬라브 옥상) 시공

### 옥상지붕공사

슬라브 주택, 데스리 및 한옥 등은 칼라강판 지붕공사

### 옥상 스틸방수

갈라지고 물이 새는 옥상바닥 겨울의 차가운 냉기! 여름의 뜨거운 열기! 방수와 단열 한번에 해결!

옥상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무료견적 디자인 등록 제30-0934833호 제30-0949873호 특허청

광주·전남 같이 하실 분 모십니다.  
모던건설 (트윈스틸) 시공 문의 062)531-3530, H .010-9229-3530